

비상계엄 극복 불구 잇따른 악재에 지역민 ‘쌘쓸’

2025 상반기 광주·전남 사건·사고 결산

지난해 말 제주항공 참사 ‘비탄’
금타 화재·일가족 살해 등 연이어
소상공인 올리는 ‘노쇼’도 기승

어느새 2025년 상반기가 저물었다. 12·3 비상계엄과 1229 제주항공 참사의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새해는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다. 이에 본보는 올해 상반기 광주·전남 주요 사건·사고를 선정, 되돌아보며 해결 과제를 짚어본다. /편집자주

◇‘빛의 혁명’이끈 지역민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흑한 속에서도 5·18민주광장에 나온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마침내 올해 4월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어냈다. 장갑차와 무장 군인까지 동원했던 권력에 지역민들은 촛불과 응원봉을 들고 평화롭게 저항했다. 엄동설한도 꺾지 못했던 이들의 열망은 한 데 모여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 비상행동’이란 단체로 거듭났다.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 186곳이 최종 참여한 비상행동은 지난해 12월10일 출범 후 탄핵 선고까지 총 20차례의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 기간 비상행동과 뜻을 같이하는 단체의 집회와 상경 투쟁까지 포함하면 총 참여 인원은 10



지난해 12월29일 태국 방콕에서 오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무안공항에 착륙하던 중 추락해 구조대원들이 사고 지점 비행기 동체 안에서 찾은 승객 시신을 활주로에 임시로 마련된 대기장소로 옮기고 있다. 오른쪽은 지난해 12월14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광주시민총궐기대회 모습. /광주매일신문DB



만명이 훌쩍 넘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들을 위해 지역민들이 펼친 선결제 릴레이는 ‘제2의 주먹밥 운동’이란 이름으로 귀감이 됐다. ◇‘179명 사망’ 처벌 하세월 2024년 끝자락에 승객 175명 전원을 승무원 4명 등 총 179명이 사망한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연발연시 광주·전남 지역사회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신원 확인과 시신 인도에만 열을 넘겨 걸렸던 탓에 가족을 떠나보낸 무안공항에서 새해를 맞은 유가족 중 일부는 아직까지 그곳을 지키고 있다. 유가족이 원하는 건 참사에 대한 명명백백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나, 지난 6개월간 이렇다

할 진전은 없었다. 현재 제주항공 참사 조사는 전남경찰청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맡고 있다. 전남청은 수사 대상 피의자로 24명을 특정했다고 밝혔으나 항철위는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어느 단계까지 조사가 이뤄졌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화재 금타공장 조사 난항 지난 5월17일 불이 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 대한 조사도 언제 마무리될지 단언할 수 없다. 화재 현장 조사를 위해 금호타이어가 제출한 건물해체계획서는 현재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를 받고 있다. 검토 후 광산구는 자체 심의를 거

쳐 최종 해체 허가를 내준다. 일련의 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 최소한 달이 걸릴 전망이다. 심의 과정에서 반려나 보완 요청이 들어올 경우 지연은 불가피하다. 허가가 난 후에는 건물 해체와 화재 원인 조사가 함께 이뤄질 예정이라 관련 수사도 이때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생·강력범죄도 줄줄이 노쇼 사기라는 다소 생소했던 범죄는 올해 들어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많은 피해자들을 낳았다.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접수된 노쇼 사기 건수는 각각 129건·43건이다. 물품 또는 먹거리를 주문한 후 다른 업

체의 상품을 대리 구매해주면 한꺼번에 비용을 결제하겠다는 수법이 주를 이루는 노쇼 사기는 ‘조기대선’의 막이 오른 지난 4월부터 특히 기승을 부렸다. 광주에선 가족 공동체가 파괴되는 사건도 잇따랐다. 올해 설 명절 때 동구 학동 자택에서 어머니의 얼굴을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60대는 최근 광주지법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가족여행을 가장해 떠난 여행지에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지모(49)씨는 최근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안재영기자

‘반입·유통·투약’ 마약 사범들 잇따라 철퇴

전남경찰, 외국인 32명 구속 송치
광주지검, 상반기 30명 입건·기소

밀반입한 마약을 전국 각지에 유통한 외국인들이 수사 기관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30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외국인 32명을 최근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해외에서 밀반입한 필로폰과 아바 등의 마약을 대포 차량을 활용해 전국 각지에 판매하거나 직접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혐의가 투약에 한정되는 이들은 4명이며, 나머지는 직·간접적으로 마약의 유통에 가담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또 피의자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불법체류자로 파악됐으며, 경찰은 총책 A(30대)씨와 판매책들로부터 필로폰 67.73g(약 2억2천만원)과 아바 467정(약 2천300만

원)을 압수했다. 이날 광주지검도 올해 상반기에 마약 사범 30명을 입건했으며 이중 1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압수한 아바, 필로폰 등 마약은 약 3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분량이며 3억5천500만원 상당이다. 주요 피의자인 B씨는 항공특송화물로 태국에서 2억3천만원 상당의 아바 1만17정과 필로폰 310g을 들여오려다가 붙잡혀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B씨 외 피의자 2명은 독일, 베트남 등에서 마약을 약병에 숨기거나 초코음료 분말, 커피 원두 방부제 등으로 위장해 수입하려다 적발됐다. 이밖에도 광주지검은 유흥가 일대에서 케타민을 조직적으로 유통시킨 공급책과 이를 매수·투약한 종업원과 손님 등 20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마약의 위험으로부터 국

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재영기자 “市교육청, 신가2중 설립 취소 재검토해야” 광주 광산구가 광주시교육청의 (가칭)신가2중학교 설립 취소 결정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했다. 광산구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신가2중학교 복합시설 설립은 지속 가능한 교육 생태계 조성 과 주민의 입장에서 반드시 다시 검토돼야 한다”며 “市교육청에 재논의를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교육청은 오는 7월2일 오전 10시 광주 시의회에서 ‘신가2중학교 설립 취소’ 관련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광산구의회 의원과 주민 대표, 학부모 등이 참석해 설립 재검토를 촉구할 계획이다. /이육근기자

故 이춘식옹 배상금 서류 위조 자녀 2명 불구속 송치

광주서부경찰 ‘피의자중 1명 혐의 인정’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고(故) 이춘식 할아버지의 배상금 수령 서류를 위조한 의혹을 받은 자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를 받는 이 할아버지의 자녀 A·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치매로 병원에 입원 중이던 부친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지원재단의 배상금 수령 관련 서류를 병원 서류인 것처럼 속여 서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B씨는 해당 서류를 통해 정부의 ‘제3차 변제안’에 따른 배상금을 대신 받았다. 경찰은 지난 1월께 이 할아버지의 장남 이창환씨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뒤 재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동생 A씨 등이 제출한 관련 서류를

확보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 중 한 명은 혐의를 인정하는 반면, 다른 한 명은 관련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 CCTV가 설치돼 있지는 않았지만, 대면 조사 등을 거쳐 혐의 여부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할아버지는 1940년 17세의 나이에 일본 이오테현 제철소로 강제 징용됐다가, 지난 1월27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2018년 대법원은 일본제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자 우리나라 정부는 ‘제3차 변제’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줄곧 거부해 온 이 할아버지 측은 지난해 10월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수령했는데, 당시 이창환씨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부친이 의사를 밝혔다는 게 석연치 않다고 강력해 왔다. /주성학기자

60플 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등록번호 : 2023-광주광산-0025

대출상품비교

최저금리, 최대한도 다양한 상품을 한번에 비교하세요.
직군, 소득에 맞는 금융사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쉽고 빠르게 승인 가능한
씨엔에스 주력 상품 리스트!

사업자대출
정착자금 1억한도
금리2%

직장인신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담보대출
아파트, 단독주택,
차량 담보 대출

채무통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상담전화 | 010-3929-1403